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새정부 · 민선8기와 함께 성장시켜야”

송하진 도지사, 핵심 사업장 찾아 추진상황 점검
“국정과제 · 민선8기 공약 연계 도약 기회 삼아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국가 최대 사업이자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 핵심 사업장을 찾아 새만금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송 지사가 임기 내 증점 현안으로 챙겨온 새만금 사업이 정권 교체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송 지사는 새만금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변도시 조성 현장과,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착공 30주년을 맞은 새만금 사업은 민선 6~7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용지매입, 내부개발 투자유치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와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새만금 사업은 민선 8기 송 지사가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를 유치하고 정치권과 전북도 간 공조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매년 6~7,000억원에 불과하던 국가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민선 7기에는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

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2018년)되어 내부매입이 빨라졌으며, SK·GS글로벌 등 대기업 투자 유치(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2019년), 새만금 인입철도와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예타 통과(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2021년)까지 굵직한 일들을 모두 이뤄냈다.

이번에 방문한 수변도시 조성과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사업 또한 송 지사가 임기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낸 결과물 중의 하나이다.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약 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물막이 공정이 마무리됐다. 수변도시가 완성되면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아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24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항만은 재정사업으로 2025년까지 2선석이 완공될 계획이다. 지난해 예타 통과된 인입철도가 완성(2030년)되면 새만금의 물류 체계의 기틀인 트라이포트(tri-port)가 완성될 것이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도 임기 내



지난 20일 새만금 신항만 사업 현장을 찾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새만금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해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을 챙기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와 민선 8기가 힘을 모아 새만금 성장을 한 번 더 끌어 올려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직접 둘러보고, 새만금을 과격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한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전

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맞춰 새만금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채워 나가야

할 시기이다.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이제야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금 이 시기가 새만금의 성공을 판가름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 등으로 정책 방향이 재설정 되는 시기임에도 새만금 사업은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하고, 국정과제는 물론 민선 8기 공약 사업과도 연계해 새만금을 성장시키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정부 방침 따라... 유행상황 변동 고려 전환 여부 재평가

전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4주 후인 다음달 20일 전환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지난달 28일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고,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유지했다.

그러나 일 평균 전국 3만 명대 발생 지속, 확진자 감소속 둔화, 인구이동량과 감염재생산지수 상승, 신규변이의 지속적 출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격리 의무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격리 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4주간 연기하며 신규변이 발생 등 유행상황을 고려해 6월 20일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7일을 유지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이 지속된다.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은 자율적 지원 일정과 연동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4주간의 재평가 기간 동안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등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추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유전육종 빅데이터 기반 저탄소 소고기

전북대 교원창업 기업 멜리엔스, 소 탄소발자국 예측 시스템 개발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10년 연구 성과 '로카 카우' 출시



저탄소 소고기 품종이 높아 도축 시점 기준 탄소 배출이 저감된 소고기다. 세계 평균에 비해 16.6%의 탄소배출량이

전북대학교 교원창업 기업 멜리엔스(대표 이학교)가 세계 최초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소의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다. 특히 저탄소 검증한 우인 '로카카우'도 출시됐다.

이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15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전체 500억톤의 12%를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내도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1990년 580만톤에서 2018년 940만톤으로 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최신 공표 기준(2017년도) 소고기 탄소발자

국은 1kg 생산 당 25.5kg(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배출한다. 이번에 출시된 '로카카우'는 8.9kg를 배출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탄소발자국이 35% 이하인 저탄소 한우다. 전북대 연구진은 유전육종 기반의 저탄소 소고기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저탄소 소고기 품종을 송아지 단계에서 예측하고, 이력 정보를 통해 추적 검증했다.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어미소와 송아지의 유전체 데이터 정보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예측하고 관리했다. 동일한 사육기간 동안 강건성을 유

출어 이를 30년생 소나무로 환산할 경우 3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학교 교수가 이끌어 온 전북대 축산토종립 연구팀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10년 연구 성과 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창업했다. 미국 현지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 준비를 마쳤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70년 전통 '포코드벤처스'사의 살림다디(Salim Dadi) 대표는 “축산탄소 중립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 기업가치 전문 평가사로부터 약 2조원 대의 기술과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리포트를 받았다”며 “이후 한국과 긴밀한 사업 연계가 이뤄질 경우 세계 축산토종립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학교 대표는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연구기반의 세계적인 축산토종립 융합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성장 시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개발공사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